



조선후기 기호유학의 정수(精髓)를 맛보는 논산지역 유교문화 기행

임 선 빈 (충청학연구부장)



잊혀진 논산의 선비 이미지
논산은 호서 예학의 산실
향교와 서원이 많았던 논산
호서예학 1번지 돈암서원
사제동행의 상징 임이정과 팔괘정
계백의 충절이 스며있는 고장
양천허씨의 절행은 강요가 아닌 선택
종부(宗婦)의 손길로 다듬어지는 유증고택
조선후기 '강남의 8학군' 노성의 종학당
참된 선비상은 개혁적이고 진취적



잊혀진 논산의 선비 이미지

오늘날 기성세대 남성들은 대부분 '논산' 하면 가장 먼저 연무대의 제2훈련소를 떠올린다. 무릎과 팔꿈치가 까지도록 기었던 각개전투장, 눈물 콧물 흘리던 화생방훈련장, 밤새 팬티바람으로 구보하던 연병장, 모두가 그리 아름다운 추억만은 아니다. 좀더 학구적인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백제의 마지막 충신 계백장군이 불굴의 투지로 싸우다 전사한 황산벌을 기억하고, 주부들에게는 모 방송국 TV의 인기드라마 '정 때문에'의 촬영장소였던 근대도시 강경의 포구와 젓갈시장이 익숙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다가 시로 승격된 계룡 신도시(신도안)의 3군사령부도 논산의 지역 이미지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군사도시 논산에 대한 강한 인상은 논산이 과거 수 백년간 선비의 고장으로 조선시대에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였으며, 유교 문화자원이 많이 남아 있는 선비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하게 한다.

선비는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서, 특히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 또는 신분계층을 가리킨다. 선비문화의 전성기인 조선시대에 충청도는 선비문화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 우리 나라의 유학은 크게 영남유학과 기호유학으로 대별되는데, 조선후기 기호유학의 중심은 바로 충청도였다. 조선 후기 300년간의 중앙정계는 대체로 기호세력이 주도하였는데, 기호학과 가운데 율곡 이이의 적통을 계승하는 김장생·김집·송시열·권상하 등이 모두 충청도 출신이며, 원래 송시열의 수제자였다가 후에 노·소분당이 되면서 갈라선 명재 윤증도 충청도 분이다.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난숙기는 17세기인데, 이 시기의 주도적인 위상에 있던 유학자들은 기호, 그 중에서도 호서출신이 절대 다수였으니, 이는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



사계 김장생.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 7월에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여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각종 선양사업을 펼친 바 있다.

수 있는 산림도 예외가 아니었다. 산림(山林)은 조선시대 산곡림하(山谷林下)에 은거해 있으며 학덕을 겸비하여 국가로부터 징소를 받은 인물로 산림지사(山林之士), 산림숙덕지사(山林宿德之士), 산림독서지사(山林讀書之士)의 약칭이다. 산림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향촌에 은거해 있으면서 유림(儒林)의 추앙을 받았으며, 정계를 떠나 있어도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니며, 정계에 진출해 있다 해도 항상 산림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 조선후기 특유의 존재로서, 이들의 명성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이루



강경 황산의 암각문 '靑초암'. 우암 송시열이 새겼다고 전해진다.

어진 것이었으므로,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과거를 거친 관료보다 더 존중되는 선비였다. 17세기 산림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현재 조사된 38명 가운데 충청도가 17명, 경기도가 7명, 경상도가 5명, 전라도·강원도가 각각 2명, 평안도가 1명, 미상 4명이다. 그런데 충청도 출신 가운데 김장생(연산), 김집(연산), 윤순거(노성), 윤선거(노성), 윤원거(노성), 윤중(노성) 등이 논산출신이며, 송준길(회덕), 송시열(회덕), 이유태(금산·공주) 등도 논산에서 수학했다.

논산은 호서예학의 산실

조선시대 유학계의 유명한 3대 논변으로 사단칠정론, 예론, 인물성동이론을 거론한다. 이 가운데 예학은 이론



학인 성리학을 실천 학문으로 승화시킨 조선 후기 사상사에서 주목해야 할 흐름의 하나이다.

여말에 중국으로부터 수용된 성리학은 우리나라에서도 16세기에 이르면 조선적 유학이라고 불릴 만큼 깊이 연구되기 시작했고, 17세기에는 임진왜란 이후 실학이 대두하기 전 1백년간을 예학시대로 규정할 만큼 예학이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17세기 예학은 가례를 시행하기 위한 이해 차원에서 넘어서, 예제를 철저하게 고증하여 예의 근본정신을 확립하고, 당시 상황에 합당한 예제 정립을 추구하였다. 예학의 바탕 위에 도학자들은 몸소 엄격하고 철저하게 예를 실천하였으며, 또한 당시의 불합리한 예제를 비판하고, 상황과 현실에 맞도록 주체적으로 예제 질서를 수정하였다.

이 예학의 시대 문을 연 분이 바로 연산출신의 사계 김장생이다. 김장생은 율곡 이이의 성리학을 계승하고 예학을 정립하여 한국 예학의 종장(宗長)이 되었으며, 그 제자인 우암 송시열은 한국 춘추정신의 사표(師表)가 되었다.

17세기에 논산에서 이루어진 예서로는 김장생의 가례집람, 의례문해, 상례비요, 김집의 의례문해속, 윤선거의 가례원류, 윤증의 의례문답, 상제례유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례집람과 의례문해는 조선 예서 가운데 학문여건을 구비한 초기적인 예서이며, 향후 예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논산에 위치한 건양대학교에 예학교육연구원이 설치되어 활발한 예학연구와 예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 노성향교 |

는 것은 이와 같은 논산의 역사적 전통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향교와 서원이 많았던 논산

예학의 고장인 논산에는 조선시대에 유교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이 많이 건립되었다. 향교와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의 각 고을에 설립되었던 교육기관으로 유학적 사회분위기와 교화, 인재 양성과 그 활동기반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기구였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고을마다 1개의 향교가

설립되었다. 오늘날의 논산시는 조선시대의 연산, 니산(노성), 은진이라는 세 고을이 1914년에 한 고을로 합쳐지면서 논산군이 되었다. 따라서 논산에는 연산향교, 노성향교, 은진향교라는 3개의 향교가 남아있다.

서원은 중요한 사설교육기관이자 선현(先賢)을 제사하는 제향처(祭享處)였다. 조선시대 서원은 전국에 900여 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논산지역에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사액서원으로 돈암서원 노강서원 죽림서원이 세워졌고, 이외에도 구산서원 금곡서원 봉곡서원 충곡서원 행림서원 효암서원 휴정서원과 궐리사 등이 있었다. 조선 후기의 서원은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정리에 의해 대부분이 훼철되고 전국에 47개만 남게 되었다. 이때 충청도에는 5개의 서원이 남아 있었는데, 오늘날의 충청남도에는 논산시에 위치한 돈암서원과 노강서원 2곳 뿐이었다. 현재 충남에 있는 그 외의 서원은 모두가 대원군시기에 훼철되었던 것을 후에 복원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예학 1번지 돈암서원

돈암서원은 논산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국도의 우측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팻말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지만, 서원 주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아쉽음이 크다. 특히 자동차로 대전에서 논산방면으로 달리다가 서원에 진입하려



| 돈암서원 묘정비 |

면 매우 불편하여, 필자의 지인 중에는 돈암서원을 방문하다가 미세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돈암서원(遯巖書院)은 김장생의 문인들이 스승을 추모



| 돈암서원 |

하여 사우를 건립한 뒤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오다 사당 앞에 강당을 건립하면서 서원의 단초를 열었다. 창건시 김장생(金長生)을 주향으로 설정하였으며, 1658년(효종 9) 김집(金集)을 추배하였고, 1659년(효종 10) 사액 되었다. 이후 1688년(숙종 14)에 송준길(宋浚吉), 1695년에는 송시열(宋時烈)을 각각 추배하였는데, 이상의 4위는 모두 성균관과 향교에서 제향하는 동국 18현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다.

창건 당시에 서원 서북쪽에 '돼지바위'가 있어서 서원의 이름을 '돈암'이라 하였다 하는데, 현재의 돈암서원 주변에는 돼지바위가 보이지 않는다. 원래 돈암서원은 현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독재 김집의 불천지위 사당(부조묘)에서 가까운 호남선 철도변(연산면 임리 249번지)에 있었다. 1881년(고종 18)에 서원이 지대가 낮아 홍수 때에는 뜰 앞까지 물이 차므로 조금 높은 지대인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돈암서원 건물 배치는 원래의 돈암서원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돈암서원의 외삼문인 입덕문을 들어서면 넓은 강학공간에 놀라게 된다. 강당이 3개나 있으니 양성당, 응도당, 정회당이 그것이다. 특히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겹처마맞배지붕인 응도당은 강당의 규모도 규모려니와 예서(禮書)에 기재된 구조를 그대로 고증한 한국 유일의 건축 양식으로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역사학도보다도 고건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의 답사코스로서 더 각광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일찍이 논어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승당제자(昇堂弟子), 입실제자(入室弟子)의 의미를 응도당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양성당은 강학공간의 넓은 마당을 두고 입덕문과 마주보며 사당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양성당의 서측에 장판각과 정회당이 있다. 정회당은 원래 돈암서원의 강당이 아니고, 사계 김장생의 아버지인 황강 김계희가 공부하던 서당을 후에 옮겨 세운 것이라고 한다. 장판각에는 사계전서, 황강실



| 돼지바위 | 돈암서원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 정회당 |

기, 신독재전서(유고), 사계유고, 경서변의, 가례집람, 상례비요 등 7,000여판 이상의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황산김씨 후손의 말에 의하면, 8·15 광복 이후 6·25전쟁 시기에 많이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주로 아이들의 쓸매판으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돈암서원 양성당 앞 뜰에는 1669년(현종 10)에 세운 묘정비가 서 있다. 돈암서원이 건립되면서 김장생, 김집 부자의 학문을 칭송하고, 서원건립의 과정 및 각 건물의 구조와 의의를 적은 것으로 송시열(宋時烈)이 비문을 짓고, 송준길(宋浚吉)이 쓴 글씨이니 눈여겨 볼만 하다.

돈암서원의 강학공간은 오늘날에도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사, 동양철학 등 동양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모여 매년 강독하고 학술모임을 개최하는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사제동행의 상징 임이정과 팔괘정

오늘날 젓갈시장으로 널리 알려진 강경은 한말 일제시기에 번성한 도시였다. 그리하여 강경에는 일제시대의



| 임이정 |

건물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강경에는 조선후기 선비의 자취도 남아 있다. 황산의 죽림서원과 임이정·팔괘정 등이 그것이다.

임이정(臨履亭, 강경을 황산동 95번지)은 1626년(인조 4)에 사계 김장생이 건립하여 후학들에게 강학하던 곳으로 원래 황산정(黃山亭)이라고도 했다. 「임이정기(臨履亭記)」에 의하면 '臨履亭'이란 「시경(詩經)」의 "두려워하고 조심하기를 깊은 못에 임하는 것 같이하며, 얇은 어름을 밟는 것 같이 하라"는 구절에서 연유하고 있다고 한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소박한 모습이다.

한편 황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서향사면에 팔괘정(八卦亭)이 위치한다(강경을 황산동 86번지). 팔괘정은 송시열(宋時烈)이 건립한 정자로서 이울곡을 추모하며 당대의 학자 및 제자들을 강학하였던 장소로 전해진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다. 팔괘정 부근에는 건물의 초석으로 보이는 석재 수기가 흩어져 있고, 건물 뒤편 암벽에는 송시열이 각자했다고 전하는 '靑草岩(청초암)', '夢挂壁(몽괘벽)' 등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일설에는 우암 송시열이 스승인 김장생(金長生)이 임이정(臨履亭)을 건립하고 강학을 시작하자 스승과 가까



| 팔괘정 |

운 곳에 있고 싶어하는 제자의 마음으로 팔괘정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임이정과 팔괘정은 150m 거리 안에 있다. 임이정과 팔괘정을 방문하면 오늘날에도 스승과 제자의 글 읽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 오는 듯 하다. 오늘날 매년 5월 15일에 기리는 스승의 날이 1958년의 강경여자고등학교(현 강경고등학교)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들의 사은활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니, 이 또한 임이정, 팔괘정의 유혼이 아닌지 모르겠다.

계백의 충절이 스며있는 고장

논산에는 백제의 역사에서 충의와 절의를 상징하는 계백(階伯, ?~660)장군을 주벽으로 모시는 충곡서원이 있다. 계백은 660년 김유신(金庾信)과 소정방(蘇定方)의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요충지인 탄현(炭峴)과 백강(白江)으로 진격해오자, 결사대 5천인을 뽑아 거느리고 황산(黃山)벌에 나가 5만여 신라군을 맞이하였다. 그는 전장에 나아가기에 앞서 “한 나라의 힘으로 나·당의 큰 군대를 당하니 나라의 존망을 알 수 없다. 내 처자가 잡혀 노비가 될지도 모르니 살아서 육보는 것이 흔쾌히 죽어 버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고는 처자를 모두 죽이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을 각오하였다.

또한, 병사들에게도 “옛날 월왕(越王) 구천(句踐)은 5천명으로 오왕(吳王) 부차(夫差)의 70만대군을 무찔렀다. 오늘 마땅히 각자 분전하여 승리를 거두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격려하였다. 그의 결사대는 험한 곳을 먼저 차지하여 세 진영으로 나뉘어 신라군에 대항하였다. 목숨을 버릴 것을 맹세한 5,000 결사대의 용맹은 신라의 대군을 압도할 만하였다. 그리하여 처음 신라군과의 네번에 걸친 싸움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충곡서원

그러나 반굴(盤屈)·관창(官昌) 등 어린 화랑의 전사(戰死)로 사기가 오른 신라의 대군과 대적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나 적었다. 결국, 백제군은 패하고 계백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계백은 관창을 사로잡았으나 나이가 어린 점을 들어 그를 살려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차 생포 후에 그의 목을 베어 이를 말안장에 매어 돌려보내고 있다. 비록 국운을 건 전투였음에도 도의에 입각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최고 지휘권자로서의 계백의 성품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또한 신라가 처음에는 불리하였으나 김영운과 관창 같은 어린 화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전투상황을 반전시켰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초전에는 계백이 이끄는 5천결사대가 우세한 입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계백의 군사적 능력이 뛰어났음을 의미한다.

조선초기의 권근(權近)은 계백이 출전하기에 앞서 처자를 모두 죽인 것이 오히려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결국 패하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며, 계백의 그러한 행동은 난폭하고 잔인무도한 것이라고 평하였다. 그러나 서거정(徐居正) 등은 계백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여 “당시 백제가 망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기에 자신의 처자가 욕을 당하지 않도록 몸소 죽이고, 자신도 싸우다가 죽은 그 뜻과 절개를 높이 사야 한다.”고 하였다. 더구나, 백제가 망할 때 홀로 절개를 지킨 계백이야말로 옛 사람이 이

른바 “나라와 더불어 죽는 자”라고 칭송하였다. 그 평가는 이후 조선시대 유학자들간에 그대로 계승되어 계백은 충절의 표본으로 여겨졌다.

계백 장군은 연산 황산벌전투에서 최후를 마쳤다. 따라서 논산 연산지역에는 궁장골, 사장골, 판창골, 수락산, 가장골 등 계백 및 황산벌전투와 관련하여 전승되어 내려오는 지명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현 부적면 신흥리에 위치하고 있는 계백의 묘를 비정하는 하나의 기준자료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계백장군 묘소가 있는 수락산(首落山) 서쪽 너머에 충곡서원(忠谷書院, 부적면 충곡리 산13번지)이 있다. 1692년(숙종 18)에 건립되었으며, 처음에는 계백(階伯)·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이개(李瑍)·유성원(柳誠源)·하위지(河緯地)·유응부(兪應孚)·김익겸(金益兼) 등 8인을 제향하였으나, 후에 10인을 추배하여 지금은 18인이 봉안되어 있다. 이 서원은 숙종 대의 노론 중진 송상기(宋相琦) 문집에 연산 육신서원의 상량문(上樑文)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제향인물이 6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사육신만 제향되었고 나중에 계백과 김익겸 2인이 추향된 듯 하다.

충곡서원은 무인(武人)인 계백이 주벽(主壁)에 제향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제향 인물들이 거의 충절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김익겸의 경우 뒷날 아들 김만중이 추향된 것을 보면, 광산김씨라는 가문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후대로 내려오며 원래의 8인 외에 10인이 더 추배되었다. 김정망(金廷望)·김홍익(金弘翼)·박종(朴種)·이민진(李敏進)·조병시(趙秉始)·김만중(金萬重)·김자빈(金自鎭)·이현동(李賢童)·이학순(李學純)·박중(朴增)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향민(鄉民)들로서 명현(名賢)의 문인이거나 후손, 혹은 충절(忠節)이나 효행(孝行)의 행적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양천허씨의 절행은 강요가 아닌 선택

“내가 생각건대 호서에는 예로부터 3대족이라 일컫는 바가 있었으니 연산의 김씨, 니산의 윤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회덕의 송씨이다.”

우암 송시열이 1672년에 작성한 회덕향약 서문에 실려있는 글이다. 그는 호서지방의 대표적인 사족으로 연산의 광산김씨, 니산(노성)의 파평윤씨, 회덕의 은진송씨를 거론하였는데, 특히 연산의 광산김씨를 첫째로 꼽고 있다. 연산 광김의 변창은 조선초기에 각각 문과에 급제하여 좌의정에 까지 오른 광산부원군 김국광과 우참찬에 오른 광성군 김겸광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토대가 형성되었으며, 17세기 호서산림을 대표하는 학자인 사계 김장생과 신독재 김집 부자의 학문에 의해 호서 제일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조선 후기 연산광김의 변창은 조선초기 허씨할머니의 희생에서 시작되었다. 광산김씨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고정리 마을 앞에는 열녀(烈女) 양천허씨(陽川許氏) 정려(旌閭)가 있는데, 이 정려는 광산김씨 김문(金間)의 처 양천허씨의 절부 정려이다. 허씨는 조선



| 사계김장생 묘역 |



| 양천허씨 정려 |

태조 때 대사헌을 지낸 허응의 딸로 광산김씨 가문의 김 문에게 출가하였으나, 17세의 나이로 홀몸이 되었다. 이에 친정부모는 허씨를 개가시키려 하였지만 허씨는 이를 눈치채고 몸종 하나만 데리고 개경에서 시택이 있는 연산으로 걸어 내려와 유복자인 김철산을 키우며 일생을 마쳤다. 그 후 김철산의 자손중에는 좌의정을 지낸 김국광을 비롯하여 대사헌을 지낸 김계휘, 예학의 거두 김장생, 학자이며 정치가인 김집, 김반 등 조선시대의 정치, 사상 분야의 많은 인물이 배출된 것이다. 그러니 허씨 할머니가 연산 광김 변창의 1등공신이 아니고 누구겠는가?

양천허씨의 절행은 조정에도 알려져 1467년(세조 13)에 명정받게 되었는데, 이때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명정비가 정려각 측면에 세워져 있다. 비석의 전면에는 '節

婦許氏之閭(절부허씨지려)'라고 음각되어 있다. 정·측면 각 1칸으로 된 정려 내부에는 홍살문 형식의 명정 현판과 함께 중건기가 걸려 있다. 명정 현판에는 '節婦 藝文館 檢閱 贈議政府 左贊成

金間 妻 贈貞敬夫人 陽川許氏之閭'라고 쓰여져 있다.

사계묘역을 방문해 보면, 양천허씨는 오늘날에도 그의 7세손인 사계 김장생을 업어주고 있다. 여전히 연산 광김의 번창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종부(宗婦)의 손길로 다듬어지는 윤증고택

노성면 교촌리에는 노성산 아래 기슭에 윤증고택이 있다. 명재 윤증은 윤선거의 아들로 어려서는 시남 유계에 학문을 배웠고, 19세에는 탄옹 권시의 사위가 되어 예를 익혔다. 그 후 김집에게 사사하였으며 다시 송시열에게 주자학을 배워 학문의 깊이를 더하였다. 윤증은 부친



| 윤증고택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39호로 지정되어 있다.



명재 윤증 초상화. 콧날(응고龍鼻)에서 강직함이 느껴진다.

처럼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성리학에 전심하였으며 특히 예학에 밝았다. 1663년에 삼사의 천거를 받아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은 채 산촌에 묻혀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1700년에는 우의정에 제수되었지만 14번의 상소를 올려 사양하였으므로 백의정승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군왕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삼공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오직 윤증뿐이라고 한다. 그가 죽은 후 나라에서는 문성이란 시호를 내렸다.

윤증고택은 윤증의 장자인 윤행교가 윤증의 말년에 건



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윤증 자신이 이 집에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집을 지을 당시 근검을 미덕으로 삼고 있던 윤증은 건축 자체를 반대하였던 것으로 후

손들은 전하고 있다.

가옥은 목조 단층건물로 조선중기 상류층 주택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노성산을 배경으로 하여 좌측에 인접한 노성향교와 나란히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연못에 그림자를 드리운 아름다운 고택으로 1999년 모 방송국에서 '전국의 종가 10집'을 선정해 건축미와 기능성을 평가할 때 강릉의 선교장 다음으로 윤증고택이 선정된 바 있다. 고건축에 문외한인 필자가 이 아름답고 깔끔한 수백년 내려온 선비의 집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집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

필자에게는 고택도 고택이려니와 19세에 노성의 파평 윤씨 문중에 와서 85세가 되기까지 66년째 선비문화를 지키면서 살아오신 양창호 할머니에게 관심이 간다. 20여년전 처음 뵈었을 때에 비해서는 이제 기력이 많이 쇠잔해지셨지만, 여전히 깨끗한 자세로 앉아 들려주시는 말씀(소박하지만 정성어린 노성윤씨의 제사상 차림, 종가의 간장 담그는 이야기, 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노성윤씨 문중의 생생한 역사, 검소하고 깔끔한 윤증고택의 특징 등)을 듣고 있다보면, 은연중 종부(宗婦)에게도 선비의 기품이 배어있음을 느낄 수 있다.

조선 후기 '강남의 8학군?' 노성의 종학당

서울 강남은 아파트 값이 천장부지로 치솟아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교육환경이 좋아서라고 한다. 소위 '강남 8학군'이라는 이곳에



[노성 종학당]

는 좋은 학원이 많아서 학생들의 명문대학 진학이 수월하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후기 논산의 노성에는 강남 8학군보다 교육환경이 월등했던 종학당이 있었다.

노성면 병사리(원래 丙舍란 齋室, 齋閣을 의미한다)에 있는 종학당은 지방의 명문가에서 집안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만든 문중서당이다. 이 종학당은 파평윤씨 종중의 자녀와 문중의 내·외척, 처가의 자녀들까지도 합숙, 교육시키기 위해 1640년경 동토 윤순거가 건립한 것이다. 당시 윤순거는 파평윤씨 문중자제의 교육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제 윤원거, 아우 윤선거와 같이 종약 및 가훈을 제정하고, 종학당을 건립했으며, 책 기물 재산 등을 마련하고 윤순거 자신이 초대 당장이 되어 초창기 학사 운영의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원래 종학당의 전신이자 유서가 되는 것은 종학당 바로 뒷편에 있는 정수암, 일명 정수루이다. 이 건물은 누각과 서재가 있어 선비들이 학문을 토론하며 시문도 짓던 장소였다.

이 정수암과 종학당은 창건 후 약 340여 년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재를 배출한 학문의 요람이었으니, 노성 파평윤씨 가문의 대과 급제자 46인의 대다수가 이곳 출신이었다고 전해진다. 한 장소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과거에 40여명 이상 배출된 곳은 조선시대 600년의 역사에서 전국 어디에도 없던 일이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노성지역에 서울 강남 지역 극성스런 학부모들의 위장전입

과 땅 투기가 꼬리를 물었을 것이다.

노성의 파평윤씨 문중에서는 이 자랑스런 종학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요즈음에도 정례적인 문중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등 문중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전통문화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제 문중의식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여 일반인에게도 과감하게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된 선비상은 개혁적이고 진취적

이상은 논산의 선비문화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후기 선비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논산에는 아직 후학들의 게으름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는 곳이지만, 세공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유교문화자원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선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듯 하다. 이는 조선왕조의 멸망이 성리학과 양반 때문이라는 논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망국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망할 당시의 지배층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조선망국의 책임도 상당부분 당시의 지배층이었던 양반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나라가 망한

책임을 같은 양반이라고 해서 수 백년 전인 조선 중기나 전기의 양반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어느 나라이고 언젠가는 망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망하기 직전의 사회는 대부분 타락하기 쉽다. 그러나 로마제국이 말기 향락에 빠진 귀족들의 타락한 생활 때문에 망했다고 해서, 전성기 로마제국의 건전한 귀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 몽고제국 원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대제국을 건국한 칭기스칸이나 쿠빌라이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20세기초에 조선이 망했다고 해서 조선중기의 양반이나 선비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조선시대 대부분의 선비들은 같은 시기 세계 다른 지역의 지배층에 비해 건강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조선 선비에 대하여 갖고 있는 꼬장꼬장하고 깐깐하다거나 평생원같다는 표현은 조선말 망국대부(亡國大夫)가 된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기방어적으로 편향된 지식인상에 불과하다. 사람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의 선비들은 오히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인물이라 보수세력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었다.

흔히 선비문화를 논하면 문약을 들먹이곤 한다. 문치주의 사회를 지향했던 조선시대의 사람정치가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비 개개인은 결코 나약하지만은 않았다. 선비들의 현실비판과 개혁정신은 종종 자신의 지위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선비정신은 오늘날의 나약한 현대인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논산에서 배출한 조선시대의 기라성 같은 선비들과 못난 후손들에 의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여전히 묻혀있는 논산의 선비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독회 | 돈암서원 응도당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신문화를 맛보고 있다.

논산지역의 선비문화 답사코스

- ① 연산의 유교문화와 황산벌 : 황산벌 - 계백장군 묘역 - 충곡서원 - 돈암서원 - 고정리 종가·재실(허씨 정려, 광산김씨 종가, 재실 등) - 사계묘역(신도비, 묘역, 재실, 부조묘 등) - 개태사
- ② 노성의 선비문화 체험 : 노강서원 - 장구리 유적(윤항고택, 사당, 묘역) - 병사리 유적(파평윤씨 종학당, 병사묘역 및 재실, 유봉영당) - 교촌리 유적(궐리사, 윤증고택, 노성향교)
- ③ 근대도시 강경과 선비문화 : 강경포구와 나루 - 죽림서원과 임이정·팔괘정 - 강경읍내의 근대 건축물

〈필자가 안내한 답사 사례〉

09:00 답사 출발

- 답사의 목적, 답사코스 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차내에서〉
- 충청도의 전통문화권 구분(내포문화권/금강문화권/충원문화권)
- 계룡산의 상징적 의미 등

09:40 황산벌 도착(황령재, 황산벌)

- 황령재에서 내려다 본 황산벌
- 황산벌에서 올라다 본 주변의 산성
- 황산벌의 전략적 위치

10:20 황산벌 출발

10:40 계백묘역 도착

- 전통문화의 새로운 창조(계백묘역의 성역화 작업)
- 계백묘소, 전망대, 전시관

11:10 계백묘역 출발(차내에서 충곡서원 확인)

- 조선시대 유림의 향촌활동과 충곡서원

11:30 돈암서원 도착

- 기호유학(호서유학)의 발전과 돈암서원의 위상
- 서원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 / 향교와 비교설명

12:20 돈암서원 출발

12:30 ~ 13:30 중식

14:00 고정리 도착

- 광산김씨의 연산정착과정과 번창
- 양천허씨 정려
(정려의 의미, 충효열 포장의 종류와 포장과정, 충효열 유적과 유물)

14:30 고정리 출발

14:50 사계묘역 도착

- 사계묘소, 묘역의 석물, 재실, 불천지위 사당(부조묘)

15:30 사계묘역 출발

16:00 개태사 도착

- 고려태조의 후삼국 통일과 개태사의 창건과정
- 개태사의 중요문화재(개태사지석불입상, 개태사철학, 오층석탑, 석조)

16:30 개태사 출발

- 역사탐방의 의미, 소감 등 〈차내에서 정리〉

17:30 도착(해산)